거설답객난(車說答客難)

객(客)이 나에게 묻기를, 수레(車)라고 하는 것은 옛 성인(聖人)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지 못한 것을 서로 교환하도록 하여 천하의 재화를 두루 통하게 하는 도구로써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막힘이 없게 하며 위로는 국가의 위급함을 구제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이 편리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지금 천하의 모든 나라에 수레가 없는 나라가 없는데 유독 우리나라에만 수레가 없다. 그 이웃나라의 사정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더라도 또한 수레를 쓰는 것이 마땅하거늘, 아직도 수레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예전 사람들은 어리석고 지금 사람들은 지혜로워서도 아니며 옛사람들은 질박(質朴)하고 지금 사람들은 문화(文化)를 좋아해서도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레를 사용하는 데에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크게 이익 됨은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전에 사람들이 혹 그것을 의논(議論)함이 있었으나 사용하지 않은 것은 별도로 뜻한 바가 있었을 것이다. 그대의 견해는 심히 물정에 어두워 단지 옛 법을 흠모하여 거제(車制)1)를 시행함이 옳다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답(答)하여 말하기를, 수레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는가. 옛 습관대로 그럭저럭 임시 모면하여 당장의 편안함만을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대는 우리나라의 법이 모두

1) 수레를 사용하는 것을 제도화함.

좋고 아름다워 모든 제도가 알맞게 갖추어 졌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잠시 이것은 놓아두고 내가 한 가지를 들어서 먼저 말하고자 한다. 빈부(嬪婦)는 구직(九職)[2]가운데 하나인데, 부녀자의 바느질은 바늘에 힘입어 이루어진다.[방언에 침 중에서 옷을 꿰매는데 쓰는 것을 반날(般涅:바늘)이라 한다.] 우리나라 수 천리를 통 털어 모든 사람들이 의상을 만들어 입는데 침(바늘)을 쓰지 않고는 옷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른바 바늘을 만드는 장인(匠人)이 있는가. 만약 중국에서 하루아침에 금지하여 법을 세우고, 대장장이로 하여금 일리(一裏)를 더 보태게 하거나, 압록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면 온 나라사람이 장차 어찌 할 바를 모르게 될 것이다.

의복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다. 그물을 만드는데 촘촘한 그물코를 낼 수 없어 온 나라사람이 머리를 쌀 수 없을 것이다. 침(바늘)이 이와 같을진대 다른 것은 또 말해 무엇 하겠는가. 그러나 침(바늘)은 장사치들이 연시(燕市)[3]에서 교역하여 부인네와 그물 만드는 사람들에게 통용시켜 막힘이 없도록 한다고 하나, 내가 걱정하는 것은 용렬한 장인(匠人)이 조악한 물건을 새로 만들어 날카로운 것은 버림을 당하고 둔한 것이 행세하는 것이다.

비록 그러하나 황제(黃帝) · 요(堯) · 순(舜) · 우(禹) · 탕(湯) · 문(文) · 무(武) · 주공(周公)으로 성인이 성인에게 서로

---

2) 빈부(嬪婦), 구직(九職): 『주례(周禮). 천관(天官). 태재(太宰)』에 보임.
3) 현 북경.

전한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제도는 중국에서 배우지 않고, 옛 경전(經典)에서 상고(上考)하지 않아, 지금에 이르도록 전해지지 못하여 삼천년 동안이나 옛것을 답습하고, 마작 · 골패 · 바둑 · 주사위[모두 본래 중국에서 온 것이다]에 이르러서는 도리를 어지럽히고 가산을 무너뜨리며 자식을 그릇되게 하는 것들인데도 중국으로부터 배워서 행해진지 아주 오래 되었다. 방직기의 북과 요술거울 · 골동 · 제구(祭具) · 어지럽고 잡스러운 노리개 등이 밤낮으로 중국과 교역해 온 것들이니 이것을 보아도 또한 별도로 뜻하는 바가 있었다는 것인가?

객(客)이 말하기를 이것은 그러하다. 진실로 그대의 말과 같이 거제(車制)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다만 서울에서 손수레에나 시험 삼아 해 볼만 하다. 진실로 서울은 팔도 재화(財貨)가 모이는 곳이다. 사람과 물건이 풍부하며 도로가 곧고 평평하여 수레가 다닐 수 있어서 조금은 그 이로움을 이루겠으나, 그 나머지 지방에서는 수레를 사용한다면 폐단이 많을 것이니 또한 크게 이익 됨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땅이 넓고 크기가 우리나라에 비하여 30여배나 되고, 또 서장(西藏) · 몽고(蒙古)와 해외의 여러 나라에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서로 어깨를 스치고 수레바퀴통이 서로 부딪쳐 이와 같은 곳에서는 거제(車制)를 시행함이 유리하나,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가 싸고 있어 이미 해운의 공(功)은 있으되 외국과는 통하지 않고 또 교역하는 법이 없으니 비록 거제(車制)를 시행한다 하드라도 구구한 틈바구니 땅 또한 심히 쓸쓸하니 시행하기 어렵다.

답(答)하여 말하기를, 만약 우리나라가 법대로 거제(車制)를 시행한다면 이익을 받는 것이 클 것이어늘 어찌 이익이 없다고 하는가? 내가 청컨대 위로는 국가의 공비(空費)를 말하고 다음으로 수령(守令)의 공비(空費)를 말하고 끝으로 백성들의 공비(空費)를 말하여 삼등으로 나누어 말해 보겠다. 대저 탐라(耽羅)의 공헌(貢獻)[4]이 매해 백 바리[5]인데 탐라사람의 배가 달량포(達梁浦)에 정박하면 농민들을 찾아 모아 등을 채찍질하고 뺨을 치며 돌아가는 굽이마다 고기비늘이 늘어선 것처럼 짐을 진 사람들이 길을 메운다. 이때를 당하여 모내기 하는 자 모를 심지 못하고, 김매는 자 김을 매지 못하여 담을 넘어 구석진 곳에 숨어 그 욕을 피한다. 도호부(都護府)에 이르러서는 강진읍(康津邑)으로 말하면 한 짐바리의 값[6]이 통례로 정해진 것이 이천오백 전[이십오 냥이다]이니 백 짐바리를 돈으로 치면 그 수가 얼마인가. 이에 국가에서 대동정미(大同正米)[7]를 저축하여 두는데 백 바리가 들어올 것에 준해 총액을 계산해보면 삼백여관[삼천 냥]에 가깝다. 이처럼 탐라(耽羅)의 공물 때문에 아래로는 백성들의 농사지을 때를 빼앗음이 이와 같이 심하고, 위로는 경비가 드는 것이 이와 같이 많으니 만약 3분의 1의 비용을 들여 수레 10승을 달량진(達梁鎭)에 만들어 두게 하고 본진(달량진)에서 서울로 곧장 보내면 십년동안 얻어지는 그 돈이 얼마요. 세읍(三邑)[8]의 농민이 기뻐서 뛰며 춤을 추고 본업을 즐거이 하

4) 지방의 산물·수공품 등, 즉 공물을 나라에 바침.
5) 태(駄)짐. 마소에 잔뜩 실은 짐을 세는 단위.
6) 태가(駄價) 물건을 실어 날라다 준 삯.
7) 정미: 현재 있는 쌀. 실제로 거래되는 쌀.
8) 달량, 탐라, 강진.

며 안도할 것이니 그 이익됨이 또 얼마요. 그 나머지 청죽(靑竹)·기죽(騎竹)·나무로 만든 물건 등과 제물로 쓸 곡물·음식물·과일의 공물(貢物)·연경(燕京)[9]의 공물(貢物)·왜인(倭人)이 바친 폐물·동래(東萊)와 종성(鍾城)등 호시(互市)[10]의 물건에 드는 짐바리의 값을 모두 본주의 대동미로 회감(會減)[11]하는데, 더욱이 문서로 사실을 왜곡하는 관리들이 서로 짜고 곡식 먹는 독벌레가 되어, 한편으로는 훼절(毁折)하고 또 한편으로는 포흠(逋欠)하여 해마다 비용을 축내는 것이 손가락으로 이루 다 꼽을 수 없다. 나라에 큰 경사가 있으면 무릇 감사(監司)·통사(統使)·병마사(兵馬使)·수군사(水軍使)가 여러 가지 봉물짐을 올리는데 국가에서 아울러 주는 짐바리 값으로 엇셈을 해보면 비용을 축내는 총계가 그 돈이 얼마요, 만약 3분의 1의 비용을 들여서 거제(車制)를 시행한다면 재력이 풍족해질 것이니 10년 동안 남는 것을 합하면 그 돈이 얼마요. 경비로 쓰는 것이 이처럼 그 절제가 없으면, 국가가 쓸 경비는 항상 고갈되어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폐단에 이를 것이요. 한차례 흉년을 만나기라도 하면 관리들의 관록을 줄 방도조차 없어 묵정밭과 모래땅은 물론이요 납세의무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멋대로 공물과 세금을 거두어 들여 백성들로 하여금 사방으로 흩어져 떠돌아다니게 하니 궁극에 이름이 이러한데도 마음 편히 여기며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은 근본으로 돌이킴을 생각하지 않

9) 당시 청나라의 수도, 현 북경.
10) 외국인과의 교역을 행하던 무역장. 일본의 상인과는 남쪽의 해안 포구에서, 여진의 거래자와는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변경에서 각각 교역을 행하였음.
11) 엇셈. 서로 주고받는 것을 맞비기고 남은 것을 셈함.

기 때문이다. 거제(車制)를 세우면 위로는 비용을 덜고 아래로는 조세를 적게 거두어들이게 될 것이니 어찌 한으로 여기지 않겠는가. 거제(車制)를 널리 시행하는 것이 백성들과 나라에 이로움이 막대할 것인데도 그대는 폐단이 있다고 말하니 또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인가? 근일 이래 사치와 탐욕을 부리는 풍속이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성해져 내가 듣기로 여러 도(道)의 도신(道臣)12)이 매해말에 봉물짐을 올리는데 예에 따라 내려주는 태가(駄價)가 영남이 7여량이니 호남(湖南)·관서 또한 이에 견주어 총계해 보면 팔도의 도신(道臣)·수신(帥臣)·통사(統使)·수사(水使)와 기름지고 비옥한 주현(州縣)의 목수(牧守)와 감영(監令)에서 1년 동안 윗전을 섬기고 문안을 여쭙는데 올리는 봉물짐의 태가를 360주(州)를 통틀어 계산해 보면 대강 헤아려 보아도 10만 여량 이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백성들의 고혈(膏血)을 빨고 백성들의 지육(脂肉)을 빼앗아 윗사람을 공손히 섬기어 일신의 영화와 현달을 구하느니 보다는, 그 3분의 1을 들여서 거제(車制)를 시행하여 그 비용을 덜면 민고(民庫)에서 거두어들이는 것을 줄일 수 있어 원망이 백성에 이르지 않고 욕은 자신에게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어찌 그 지혜가 두루 통했다고 하는 이들이 백성의 재물을 빼앗는 데에는 다들 열심이며, 비용을 덜어줄 것은 궁구하지 않고, 옛것에 의지 할 줄만 알았지 사리판단에 어둡단 말인가. 수레를 널리 쓰는 것이 관(官)에나 백성에게 이로움이 막대한데도 그대는 이로움이 없다고 하니 또 무슨 까닭인가? 우리나라의 삼농(三農)13)

12) 관찰사를 예스럽게 일컫는 말.
13) ① 평지농(平地農)·산농(山農)·택농(澤農).

이 산골짜기에 있고, 평야에 있고, 바다에 있고, 강에 있어, 산골짜기에서 농사하는 이는 가뭄을 근심하고, 바닷가 제방에 가까운 이는 바람을 걱정하고, 강에 가까운 이는 침수를 걱정하니 대개 논하여 보면 해마다 흉년이 아님이 없다. 또 바다가까이 십리 밖에서 사고, 파는 값은 비록 덜 한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안쪽으로는 한차례 풍년이라도 만나면 쌀값이 똥값이오. 또 기유년(1789년)[14]과 갑인년(1794년)[15]의 무주(茂朱) · 용담(龍潭) · 진안(鎭安) · 장수(長水)지역 쌀값이 3배가 높고 영암(靈岩) · 나주(羅州) · 함평(咸平) · 무안(務安)지역 쌀값은 3배가 낮았으니 그 까닭은 무엇인가. 산골짜기에서 나는 쌀은 지세가 편벽되어 험한 가운데 있고, 평야에서 나는 쌀은 바닷가에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대신들이 전례에 따라 진휼(賑恤)하는 정책(政策)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호조전(戶曹錢) 수십만 냥을 내어 살림이 넉넉한 백성으로 맡을 만한 사람을 가려 뽑고 공(功)을 논(論)하여 상(賞)을 베풀어, 서둘러 수백승의 큰 수레를 만들도록 하여 산골짜기에서 나는 곡식은 평야지대로 옮기고 평야지대의 곡식은 바닷가로 실어내어 동서남북으로 유통시켜 막힘이 없게 하면, 이에 산골짜기에 사는 백성들은 돈을 얻어 기쁘고 평야에 사는 백성들은 곡식을 얻어 기뻐할 것이니, 두해의(기유 · 갑인년) 아귀(餓鬼)가 죽더라도 또한 원한이 없을 것이며 또 이로 인하여 그 삶을 얻을 자 장차 몇 십만이 될지 알지 못할 것이다. 또 무릇 흉년을 겪은

---

② 춘경(春耕)·하운(夏耘)·추수(秋收).

14) 1789년 9월 29일. 관서, 관북, 서해에 기근. 『실록』

15) 1794년 9월 30일. 큰 기근이 듬. 『실록』

후라도 들판이 어찌 이처럼 묵정밭으로 버려지는 데에 이르겠는가? 또 소금이라는 것이 백성들의 먹을거리를 돕는 까닭에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난날 관씨(管仲)가 이로써 제(齊)나라를 부유하게 했고 병씨(邴氏)는 이로써 가산을 이루었다. 염정(鹽政)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와 같다. 우리나라는 정염(井鹽)16)하는 법이 없고 산과 들에서 나는 소금은 물론이려니와, 다만 바다에서 구운 소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소금을 굽는 곳에서는 1섬의 소금 값이 8, 9, 10도 채 되지 않으나 바다에서 먼 산골짜기에서는 보통 4, 5백에 이른다.

또 모내기와 김매기 · 수확하는 철에는 소금 파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 소금 귀하기가 금(金)과 같아 백성들 대부분이 먹을거리에 곤란을 느끼게 되는데 그 까닭은 무엇인가. 거제(車制)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짐을 지는 것은 열말(十斗)를 넘지 못하는데 한 사람의 입이 핥는 것이 매달 3되[관자(管子)가 말한 것이다]이니, 그 만들어 파는 사람은 적고 먹는 사람은 많아, 조금 조금씩 파는 것은 마치 한 치의 아교로 탁한 것을 그치게 하고, 헤어진 참빗으로 짠 소금기를 건져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값을 헐하게 쳐주고 귀한 것을 바꾸느니 보다는 그 3분의 1을 덜어서 거제(車制)를 두어 백성들의 먹을거리를 넉넉하게 하는 것과 어찌 같겠는가.

또 기호(畿湖)의 공진(貢津) · 성당(聖堂), 호남(湖南)의 법성(法聖) · 군산(群山), 영남(嶺南)의 마산(馬山) · 가산(駕山), 충주(忠州)의 가흥(可興), 원주(原州)의 소양(昭陽) 등 여러 창(倉)에 예속된 납세하는 주(州)가 적어도 백 여 군 이상이요, 그

16) 염분이 섞여있는 지하수를 퍼 올려서 채취한 소금.

거리가 멀리는 백리, 가까운 곳도 5 ~ 6십리이상 인데, 봄에 경작하는 때에 당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메고 가게 하니 숨을 헐떡거리고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며 많게는 6 ~ 7일이 소비되고 적어도 4 ~ 5일을 소비한다. 또 무릇 홀아비 · 과부 · 고아 · 의지할 곳 없는 늙은이 · 절뚝발이 · 멍청이 · 눈 먼이 · 곱사 등이 등 짐을 멜 수 없는 자에게는 그 각가(脚價)17)를 징구하니 이 외롭고 고달프고 의지할 데 없는 이여! 어찌 가련하지 않으냐.

백주(百州)에서 허비한 것을 총계하면 몇 만이 될 터이니 만약 3분의 1의 비용을 들일 것 같으면 백성들을 힘든 일로부터 풀어주고 백성의 재용(財用)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장사치가 물화를 판매하는 것으로 말하면, 탐라(耽羅)의 삿갓대 · 호남(湖南)의 세포(細布) · 해서의 석밀(石蜜) · 북로(北路)18)의 담비는 재질이 좋은 것들이오 청산의 대추 · 운암의 감 · 완남(完南)의 생강 · 서읍(西邑)의 잣은 먹는 것 중에 좋은 것들이오, 또 금사(金絲) 담배 · 용단 차 · 비단무늬편지지 · 채색그림 장식상자 등은 모두 오랑캐와 중국에서도 드물게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다.

만약 이러한 것들을 상하사방으로 두루 통하게 하여 막힘이 없게 하면 귀한 것(비싼 것)을 천하게(싸게)하고 천한 것(싼 것)을 귀하게(비싸게)하여 조종(操縱)하고 신축(伸縮)하면 안으로는 가산과 국가를 부유하게 할 수 있고 밖으로는 외국과 선박을 교통시키며 모음과 흩음을 유통·순환시키면 되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인데 그대는 좁은 틈바구니 땅 또한 심히 쓸쓸하여 거제

17) 다리품값.
18) 서울에서 함경도로 통한 길.

(車制)를 시행 할 수 없다고 하니 무슨 까닭인가?

객(客)이 말하기를, 이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제(車制)를 시행하기 어려운 것이 8가지 단서가 있으니 그 첫째는 재목(材木)을 모으기 어렵고, 그 둘째는 장인(匠人)의 기술이 공교하지 못하고, 그 셋째는 기계가 잘 갖추어 있지 못하고, 그 넷째는 나루 · 다리 · 도로를 알맞게 고치기 어렵고, 그 다섯째는 수레를 부리는 방법이 그 법도를 얻지 못함이요, 그 여섯째는 소나 말이 길들여지지 못 함이오, 그 일곱째는 산천이 험하게 막혀 있음이오, 그 여덟째는 의론이 일치되지 못함이다. 이와 같은 여덟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대가 입술이 헤지고 혀를 수고롭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시행할 수 있겠는가.

답(答)하여 말하기를, 그대의 이른바 여덟 가지 어려움 중 그 일곱 가지는 쉽다고 할 수 있으나 그중 한 가지가 가장 어려우니 이른바 가장 어려운 것은 그대가 말한 여덟 번째 의론이 일치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다.

객(客)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쉽다고 하는지 듣고 싶다.

답(答)하여 말하기를, 하늘이 오재(五材)[19]를 나아 기르는데 다만 재목(材木)이 없음을 한탄하겠는가. 내가 일찍이 탐라(耽羅)의 산유자나무라든지 청해(青海)의 메밀잣밤나무 · 산이스랏

19) 금(金)·목(木)·수(水)·화(火)·토(土). 『춘추좌전(春秋左傳) 27년』에 보임.

나무를 보았는데 그 재질 됨이 단단하고 촘촘하며 결이 순하여 이것들을 취하여 수레바퀴통을 만들면 완고하기가 마치 쇠를 부어 만든 것 같으며 부서지거나 휘어지지 않을 것이다. 비자나무와 박달나무는 그 성질이 강함과 부드러움을 겸하고 있어 물에 잘 썩지 않고 돌에 부딪쳐도 잘 부서지지 않는다.

이것들을 취하여 바퀴살과 바퀴 테를 만들면 마치 달라붙어 있는 것 같으며 살아있는 것 같아 세 가지 다스림(수레바퀴통 · 바퀴살 · 바퀴 테)이 서로 잘 어울릴 것이다. 호남(湖南)에 천묘(千畝)의 지경에 산에서 길러지는 만 그루의 화살대가 있는데 그 성질이 강하고 가벼워 이것을 취하여 수레 덮개 살을 만들면 싣는 것을 두 배로 하여도 마소가 힘들어하지 않을 것이다.

또 제도(制度)를 처음 세울 때에 그 심을 품종을 부과하여 금령(禁令)을 송정(松政)처럼 엄하게 하면 십년을 넘지 않아서 많은 재목(材木)이 빽빽하게 들어차서 하늘높이 자랄 것이니 어찌 재목(材木)이 없음을 걱정할 것인가.

지난날 월왕(越王) 구천(句賤)이 오(吳)나라를 쳐 복수하는데 뜻을 두었던 십년사이, 월나라의 군자(君子)가 많아야 6,000일 때 그 다스림을 어찌 하였던가. 어진 자를 스승으로 섬기고 어진 자를 높이며 어진 자를 영달케 하여 그 봉록을 후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지모와 재능을 썼던 것이다. 골(谷)은 비어 있어서 다른 것을 받아들여 가득 채울 수 있고 못은 깊어야 흘러드는 물이 모이는 것이 사물의 이치이다. 정력이 미치는 바와 군자로서 얻기 어려운 인재[재난(才難)의 난(難)과 같다] 의 모여듬도 이와 같거늘 하물며 저러한 말단의 기예를 가진 자들에 있어 서야.

만약 나라를 다스리는 지모를 가진 자로 하여금 그에 걸 맞는 봉록을 나누어주고 그 신분을 고귀하게 하며, 물건마다 그 장인(匠人)의 이름을 새기고 그 정치하고 조악한 것을 비교하여 장인(匠人)을 처우하고 상(賞)은 후하게 하고 벌은 가볍게 하면 10년을 넘지 아니하여 사람 사람마다 모두 공교한 장인(匠人)이 되어 그 기예가 정치하여 질 것이니 어찌 장인(匠人)이 없음을 걱정하겠는가. 기장을 쌓아 도량형(度量衡)의 단위를 세우는데, 통일된 도량형의 단위를 정하는 것은 역대 조정에서 애써 지켜온 정사이다. 서울의 자(尺)는 호조(戶曹)가 기준이 되고, 팔도(八道)의 자(尺)는 감영이 기준이 되어, 처음 동척(銅尺)을 만들 때 장인(匠人)의 이름을 새기고 모든 장인(匠人)으로 하여금 영읍(營邑)에서 자를 받게 하여 이름을 장인명부(匠人名簿)에 적어둔 연후에야 자립하여 물건을 만들 수 있게 하고, 만약 정해진 것을 쓰지 않거나 사사로이 자(尺)를 위조한 자는 우두머리 장인(匠人)으로 하여금 그를 내치어 장인(匠人)의 수에서 제외시키고 또 형리로 하여금 신문하여 형벌로 다스리게 하며, 무릇 도끼나 자귀 · 끌 · 칼 · 톱 같은 것들은 혹 연경의 저자(燕市)나 왜관(倭館)에서 구하며, 또 쇠를 단련하는 법을 외국의 경험 많은 대장장이로부터 배워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일을 행하게 하면 기계(器械)가 어찌 정치하지 못함을 걱정하겠는가. 지난날 진시황제가 만리장성을 쌓을 때 천하의 병력을 동원하였으나 10년이 되도록 성취하지 못하고, 한나라 무제가 사막 남쪽에 있는 오랑캐를 쫓아내면서 천하의 병력을 동원하였으나 거의 편안한 해가 없었으니, 저 두 군주가 자기 일신의 사욕으로 천리에 시체를 쌓고 많은 재물을 고갈시켜 온

천하가 근심하며 비난하였으되 부역에 나아가는 것을 감히 피할 수가 없었다. 이제 이러한 나루와 다리를 놓고 길을 닦는 것은 성인들이 천하를 다스리는 큰일인데, 하물며 거제(車制)를 세워 기물의 사용을 편리하게 하고 재물을 풍부하게 하여 백성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데 누가 감히 원망을 하며 누가 감히 꾸짖겠는가. 지난날 태왕(太王)[20]이 기(岐)를 다스릴 때 잡목을 뽑아내고 묵은 나무를 제거하며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기운 것을 평평하게 하여 백성들이 지금에 이르도록 칭송하고, 하우(夏禹)가 나라를 경계 지음에 회수(淮水)를 소통시키고 한수(漢水)를 트고 산골짜기와 큰못을 불사르고 땅을 갈라 정(井)[21]을 나누어 그 공을 지금도 높게 여기는데 어찌 구구하게 조그마한 원망으로 큰일을 저지하겠는가.

우리나라의 가자(駕者)[22]는 왼쪽에서 끌고 가고 또 오어(五御)[23]의 법을 알지 못하니 진실로 어려운 바이나, 이는 마치 중국문자가 어려운데 어떻게 널리 전하여 통행하며, 중국역법을 북으로부터 배워 시령(時令)을 반포하며, 중국 이학(理學)을 어떻게 마음을 가라 앉혀 관통할까 라고 여기는 것과 같으니 오직 그 인순(因循) 때문이다. 도로가 곧고 평평하면 말이 통행하면서 놀라지 않고, 산마루의 고개를 끊고 산줄기를 자르면 험하게 막혔던 곳도 통행할 수 있다. 아아! 파촉(巴蜀)땅은 천하에 험

---

20) 주 문왕(周文王)의 조(祖). 고공단보(古公亶父).
21) 마을, 시정. 1리 사방의 땅. 900묘.
22) 수레를 타고 말을 부리는 사람.
23) 수레를 부리는 다섯 가지 기술. 『주례(周禮)·지관(地官)·보씨(保氏)』에 자세한 것이 보임.

하기를 이름난 곳인데 한신(韓信)이 옛길로 병(兵)을 이끌고 갈 때에 수레바퀴살이 깨어지고 수레축이 부러지며 치중(輜重)과 보급품을 모두 사람에 의해서 수송하였던 것인가. 지혜를 다 하여 물을 속이고 물을 노하게 할 수 있었으니 골짜기에 모여드는 물을 막아 올려 백장(百丈)의 폭포를 삼키게 하고, 기교로 궁구함이 모든 꾀를 다 짜내어 도르래의 힘으로 끌어내려 만 길의 구덩이를 넘어 산등성이를 구불구불 돌아 나아갔는데 어찌 험함을 말하겠는가.

이것이 진실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어려운 것은 의론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우리나라의 의리(義理)가 무위(無爲)로 상책을 삼고 한묵(翰墨)에 소요(逍遙)하며 산수(山水)간에서 유희(遊戱)하는 것을 목민관(牧民官)들의 청취(淸趣)로 여긴다. 대체(大體)를 힘써 지킬 것이요 연못속의 고기를 살피지 않는 것이[24] 감사(監事)가 꾀하여 실현해야 할 일이오, 위로는 천리(天理)를 따르고 음양(陰陽)을 섭리(燮理)[25]하는 것이 대신(大臣)의 요결(要訣)이다. 장탕(張湯) · 광한(廣漢) 같은 이는 방자하게 굴며 혹리(酷吏)로 이름을 떨쳤으

---

24) 춘추(春秋)시대 노(魯) 은공(隱公)의 고사(故事): 좌전 5년 봄 은공은 물고기를 보러 당(棠)에 가려고 했다. 그러자 장희백이 간하기를, "무릇 매사는 그것이 나라의 큰 일(제사 또는 전쟁)에 관해서 마음가짐을 깊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든가 또는 그것을 재료로 하여 좋은 제기나 무기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된 자가 구경을 가지 않습니다…. 대개 군주로서 비천한 사람의 일을 몸소 행함을 나무란 것이다.

25) 화합하여 다스림, 즉 재상이 나라를 다스림을 이름. 『주례(周禮)·천관(天官)·총재(冢宰)』와 『대전회통(大典會通)·이전(吏典)정부(議政府)』에 보임.

며 소유(蘇孺) · 일천(一天)은 의론이 심히 박급하였으며, 맹자(孟子)는 관중(管仲) 안자(晏子)와 더불어 비교함을 부끄러이 여겼다.[26] 어허 고것 참! 저절로 생기는 것을 스스로 망치는구나. 이에 위에서는 일을 그르치고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곤궁한 것이 오래도록 지속되어 오는 것이다. 혹 백성을 구제하고 나라를 부유하게 할 방책이 있어 장주(章奏)[27]라도 한번 올려놓으면, 털을 불어 병을 찾고, 공허한데에 얽어매고, 없는 것을 날조하여 헌부(憲府)[28]에서 신문하여 죄를 들추어내고, 정원(政院)[29]에서 죄주기를 청하여, 사람들이 이런 것을 무릅쓰게 될까 두려워 이법을 집안대대로 전하게 되니, 마침내 구제하기 어려운 병폐가 되어 지금에 이르러서는 극에 달하였다. 지난날 잠곡(潛谷) 김공(金公)[30]이 대동법(大同法)[31]을 시행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편안이 하고자 하였으니, 그 마음 둠이 지공무사(至公無私)하여 해와 달과 빛을 다툴만하였다. 그러나 배척하는 자가 많아 이르지 않는 바가 없게 되자 이에 김공(金公)이 퇴거(退去)하게 되었으며, 궁조(弓鳥)의 상주(上奏)가 있음에 이르러 [잠곡(潛谷)의 할아버지가 기묘사화(己卯士禍)에 죽었기 때문에 말한 것이

---

26) 『맹자(孟子) 공손추 상(公孫丑 上)』 편에 보임.
27) 신료가 임금에게 올리는 문서.
28) 사헌부.
29) 승정원.
30) 김육(金堉, 1580~1658). 실사구시의 선구자. 호는 잠곡(潛谷). 충청감사로 있을 때 대동법을 실시하도록 상소하여 왕의 승낙을 받고도 조정에서 실시하지 않았으나 후에 우의정을 지내게 되자 각계각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호서지방에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자 반대하던 이들도 선정이라고 탄복했다.
31) 조선중엽에 각 지방에서 바치던 여러 가지 공물을 쌀로 환산하여 내게 하던 조세법.

다.] 대동법(大同法)이 나라와 백성에 하등 큰 편리함이 있으리요 하며, 김공(金公)을 손가락질함에 버티어내며 계속 주장할 수 없게 되었고, 법 또한 그 사이에 그만 두게 되었다. [그 후에야 시행되었음] 이제 그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도리의 성쇠와 정치적 흥폐가 이때에 비하여 어떠한가. 비록 그러하나 임금 된 자 그러한 까닭의 이치를 밝게 살피어 하루아침에 확고하게 지휘하여 거제(車制)를 창립하면 처음에는 불편하다고 말하던 자들이 조정에 충만하더라도, 그러나 마침내 무리지어 하는 말에 의혹되지 않으면 10일이 지나지 않아 그 이론이 그치게 될 것이다. 만약 재상 · 공경이 비록 주공(周公)이 다시 살아나고 장량(張良) · 진평(陳平)이 다시 계책을 내어도, 한마디를 상주(上奏)하자마자 여러 몽둥이가 무리로 날아들어, 크게는 상홍양(桑弘羊) · 작게는 공손홍(公孫弘)이오 사판(仕版)을 깎아 제거하고 문밖으로 내보는 것이 손으로 가리키고 눈으로 보는 잠깐 사이에 달려 있었으니 어찌 안타깝지 않은가?

객(客)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진실로 옳다. 비록 그러하나 우리나라가 단군조선에서 신라, 신라에서 고려, 우리 조선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연지 3,700여년인데, 3,700여년 사이에 비록 거제(車制)를 시행하지 않았어도 사직(社稷)이 있고 군신(君臣)이 있고, 덕(德)있는 자 대를 이어 천년의 복을 누리고, 지혜 있는 자 수 천리의 강토를 개척하며, 예악(禮樂)이 갖추어지고 인의(仁義)가 행해지고, 군자(軍資)를 손질하고 사람과 가축이 번성하여 천하가 예의지국(禮義之邦)으로 대우하는데 지금 그대는 나라의 안위(安危)가 거제(車制) 한 가지에 달려있다고 하니

또한 심하지 않은가?

답(答)하여 말하기를, 지난날 임진왜란 · 정유재란 때에 의리와 충성으로 나라를 구하고자 일어난 선비들이 모두 몇 사람이었던가. 충직(忠直)한 마음은 비록 장하나 싸우는 지혜와 전술을 배우지 않아 진(陣)을 치고 적과 대치하여 서로 치고 때리며 싸움으로서 공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으로써 인(仁)을 이루었으니, 당시에 꼴과 양식을 수송하여 군대에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병거(兵車)를 널리 설치하여 요해지(要害地)를 군데군데 막고 끊어 놓았더라면 병사들의 마음이 더욱 씩씩해지고 싸우는 지혜와 전술에 점점 통하여 의로운 자들이 모두 죽고 싸움에 나선 사람을 모두 잃는 데에는 꼭 이르지 않았을 것이오, 충무공(忠武公)의 거북선이 그 공을 온전히 차지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왜적이 조령(鳥嶺)을 넘자 서울이 함락될까 두려워 떨며 임금의 어가가 서쪽으로 용만(龍灣)[32]에 옮겨갈 때에 바야흐로 큰 비가 내리는데, 대전(大殿)에 촛불을 잡을 사람도 없어 오성 이공(鰲城 李公)[33]이 친히 앞서 어가를 인도코자하나, 칠묘(七廟)[34]를 봉안 할 방법이 없어 오직 종묘의 한 사람으로 하여금 전대 속에 안치하여 메고 나가게 되었고, 종묘의 중기(重器)[35]와 도승(檮乘)[36] · 판도(版圖)[37] 등은 송두리째 불에 타 잿더미

32) 의주(義州) 지금의 평안북도 신의주.
33) 오성부원군(鰲城府院君)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 1555년~1618년).
34) 제왕이 받드는 선조의 종묘. 천자칠묘 『예기(禮記)·왕제(王制)』에 보임. 여기에서는 종묘에 모신 칠묘의 신주를 지칭함.
35) 나라의 귀중한 보배.

가 되었으니, 이때를 당하여 만약 수레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한편으로는 선왕(先王)의 신주(神主)를 안치(安置)하고, 한편으로는 임금의 앉을 자리를 설치하여 보기(寶器)·판도(版圖) 등을 좌우에 수습하고, 수레의 앞뒤에 밝은 불을 밝히어 걸고 이공(李公)으로 하여금 모시게 하며 수십인 으로 호위케 하여 나아갔더라면 어찌 이처럼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일이 있었겠는가. 관산통곡지구(關山痛哭之句)38)를 신하된 자 징창(懲創)39)하기에 족한데도, 채 오십년도 못 되어 강도(江都)에서의 굴욕40)과 남한산성에서의 치욕41)이 뒤이어 일어나 천하에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어찌 이보다 큰일이 있는가. 만약 풍신수길(豊臣秀吉)이 전쟁을 몇 해 더 끌고, 청 태조의 뜻이 큰 곳에 있지 않았다면 우리의 예의가 어찌 보전될 수 있었겠는가. 예의는 폐(廢)할 수 없는 것이요, 무비(武備) 또한 어찌 전부 버리겠는가. 내가 논(論)한바가 구절구절마다 이치에 들어맞는데 그대는 지나치다고 하니 또한 의혹(疑惑)됨이 아닌가.

---

36) 역사기록. 『맹자(孟子) 이루하(離婁下)』에 보임.
37) 호적과 강역지도.
38) 선조(宣祖, 1567~1608 재위)가 의주파천 때(義州播遷時)에 지은 시.
痛哭關山月(통곡관산월) 통곡하노라 국경 산에 걸린 달이요
傷心鴨水風(상심압수풍) 상심하노라 압록강에 부는 바람이라
君臣此日後(군신차일후) 군신들이 이제 뒷날에는
寧復言東西(영부언동서) 어찌 다시(동서로 갈려) 당파싸움을 할 것인가.
39) 혼나서 스스로 경계함.
40) 1637. 1. 22. 강도(강화도)함락. 세자와 궁인 등이 피난하였다가 함락되어 포로로 잡히거나 자살함.
41)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으로 피난(1636.12.14).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항복, 세자는 볼모로 잡혀감(1637.1.30).

객(客)이 말하기를, 이것은 그러하나 사람들이 늘 하는 말에 "옛 법을 버리지 말고 새로운 법은 내지 말라"고 하는데 이 말이 정말로 옳다. 중국에 비록 거제(車制)가 있다하나 가난한 자는 집안에 송곳 세울만한 땅도 없고 주린 자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데, 우리나라는 비록 거제(車制)가 없어도 부유한자 재물을 크게 쌓아놓고, 지혜 있는 자 흉년에도 죽음을 면하니, 어찌 반드시 수레가 있은 연후에 이용후생(利用厚生)한다 하리오.

답(答)하여 말하기를, 제선왕(齊宣王)이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 · 가볍고 따뜻한 의복 · 현란하고 아름다운 채색(彩色: 장식·궁녀) 가까이서 모시는 총애하는 신하들을 다 갖추어 누리는데 무엇이 부족하여 토지를 넓혀 중국에 군림하고, 사이(四夷)를 안무(按撫)하며, 진(秦), 초(楚)를 입조케 하고자하는 큰 욕심을 내었던가.[42] 홀필열(忽必烈)[43]은 북로(北虜)에서 나와 중국에 들어와 주인노릇을 하는데 무엇이 부족하여 동서로 토지를 개척하며 남으로 통하고자 하는 큰 욕심을 내었던가.

소인(小人)이 하고자하는 것이 있고, 대인(大人)이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인데, 전답 백묘(百畝)를 두고 몇 만전의 돈을 놀리며 철에 따라 양고기를 굽고 돼지고기를 삶아 처자형제가 즐거워하며 술에 취하고 배부르게 먹는 것을 꾀하는 것은 소인의 바라는 바요, 우주의 경륜을 포괄하고 고금(古今)의 치란(治

42) 『맹자(孟子) 양혜왕 상(梁惠王 上)』 7장에 보임.
43) 원 나라 세조. 연경에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대원이라 칭함. 남송을 멸하고 중원을 통일한 뒤 일본, 안남을 정벌하였음.

亂: 흥망)을 변별하며 지부해함(地負海涵)[44]의 학문으로 현룡(見龍)[45]의 때를 기다려 임금을 도와 왕도를 이루며 백성들에 은택을 입히고자함은 대인이 바라는 바요, 도덕과 교화에 힘쓰며 중화(中和)의 경지에 이르러 천지가 각각 그 바른 자리에 안거(安居)하며 만물이 생장 발육하도록 함은 천자(天子) 제후(諸侯)가 하고자 하는 바이다.

진실로 그대의 말과 같이 구법(舊法)을 버리지 말라하면 세종(世宗)의 아악(雅樂)은 어찌 관례를 답습하여 옛것을 잇지 아니하고 율(律)을 살피고 음(音)을 바르게 하였던 것인가. 화성의 궤(華城儀軌)[46]는 어찌 포루(砲樓)와 현안(懸眼)[47]을 새로 제작하여 설치했겠는가. 뼈를 쌓아서 궁궐이 되고, 똥을 살라 향이 되어도 이러한 곳에서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도를 논하여 나라를 경영하고 덕을 닦아 백성을 편안하게 하여도 저러한 곳에서도 죽는 사람이 있는 것이니 그대의 말과 같다면 피차가 다름이 없다는 것인가.

지렁이의 지혜는 흙을 먹는데 불과하고, 두더지가 먹는 것은 배를 채우는데 불과하다. 사나운 범은 바람을 일으키어 언덕을 가를 수 있고, 큰고래는 배를 삼키고 하천을 끊을 수 있는데 그

---

44) 대지가 만물을 싣고 바다가 백천(百川)을 받아들이듯이 만상을 포괄하고 풍부한 지식을 쌓음.
45) 見龍在田 利見大人(현용재전 이견대인) 『易(역)乾(건)·九二>』 나타난 용이 밭에 있으니 대인을 봄이 이로우리라.
46) 정조(正祖)가 화성을 축조할 때의 시말과 경비 등을 자세히 적은 책.
47) 포대와 성벽 구멍. 밖을 살피고 포나 총, 화살을 쏠 수 있게 성벽에 뚫어놓은 구멍.

대의 말과 같다면 지렁이와 호랑이 · 두더지와 고래가 그 나아가는 바가 같다고 할 것인가. 다른 사람의 관(冠)이 단정하지 않거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뜨는 것은 백이(伯夷)의 청렴함이니 더불어 선(善)을 행할 수 있거니와 네가 비록 발가벗고 몸을 드러내어 내 곁에 있을지라도 어찌 나를 더럽힐 수 있으리오 하니, 유하혜(柳下惠)의 공경은 따를 것이 못된다[48]. 그대의 뜻을 충족시키고자 하면 청정무위(淸淨無爲)로 선정(禪定)에 든 이후에야 그치는 것에 불과하다.

객(客)이 위연(喟然)히 탄식하며 무릎걸음으로 다가와 말하기를, 대저 예(禮)는 손익(損益)이, 법(法)은 연혁(沿革)이 있는데 융통성 없이 집요하게 옛것만을 지키고자 하여 도리어 큰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 만약 그대의 말과 같다면 무릇 백가지 계획과 안배를 장차 한결같이 이처럼 경(經)을 따라야 한단 말인가.

답(答)하여 말하기를, 바야흐로 지금 중국에서 제조하는 것이 지극히 정밀하고 천가지 백가지 모두 기교를 다하여 사치스러움과 화려함을 서로 다투는데, 만약 우리나라가 거제(車制)를 처음 시행하며 북으로 중국에 이르러 승거(乘車)를 구해 얻어다가 그 수레의 몸에 각각 진(軫) · 복(輹) · 종(踵) · 교(骹) · 복토(伏兎) 등[49]의 명칭을 써서 표지를 하여 명칭의 부위가 어긋나

48) 『맹자(孟子) 공손추 상(公孫丑 上)』 9장에 보인다.
49) 『주례(周禮)·고공기(考工記)』, 『윤인(輪人)·주인(輈人)』 등에 자세하게 보임.

지 않게 하고, 나라 최고의 장인(匠人)을 찾아 묘결(妙訣)을 구하며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50]의 글을 참고하여 그 제도를 크게 베푸는 것이 옳으리라. 오직 그 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작은 털끝만큼도 어긋나서는 안 되는 것이 육등(六等)의 정해진 수(數)이오, 과(戈)·극(戟)·수(殳)·모(矛)에 균등함을 세우고, 잔거(棧車)·식거(飾車)의 분수(分數)와, 산행(山行) 택행(澤行)의 규모와, 천(天)·지(地)·일(日)·월(月)·용조(龍鳥)·웅호(熊弧)의 상물(象物)에 비록 설사 중국이 소홀히 여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배우고 다듬어 삼대(三代)가 남긴 예의(禮義)로 천하에 쓴다면 또한 좋지 아니한가.

50) 주대에 설치한 육관(六官)중 토목 공작의 일을 관장하는 동관(冬官)사공의 일을 직분별로 기록함.